

An Analysis of Types and Discourse Structure of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Wonjun Kang¹⁾

¹⁾Jeju Dopyung Elementary School

인터넷 여성 혐오 발언 유형과 담론 구조 분석

강원준¹⁾

¹⁾제주도평초등학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and discourse structures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To this end, five Internet articles dealing with 'The Gangnam Station Murder Case 2 Cycle'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comments and replies on each article. As a method of analys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by Norman Fairclough was used to analyze text and discourse structure dimensions.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was divided into categories of appearance and properties related to temper. Each upper category discourse was based on nine sub-discourses. The nine sub-discourses were the basis for each other or acted as a reinforcement and sub-element, and maintained and expanded misogyny discourse. As an attempt to face and solve the problem situation of hate speech against women in the internet spa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actical action plan to solve the problem of hate speech against women.

Key words : Misogyny,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internet comments/replies, content analysis, discourse analysis

I. Introduction

혐오 발언(Hate speech)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미디어는 혐오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혐오 발언에 노출된다. 혐오 발언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반적으로 혐오 발언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을 근

거로 혐오감을 표현하는 언어(Lee, 2015)라고 일컬어진다.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다양하다. 그 집단들은 성별 · 종교 · 인종 · 민족 ·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 발언의 피해자가 된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 혐오 발언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 공간은 신속성, 상호작용성, 익명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먼저, 인터넷 공

Received February 26, 2020; Reviewed March 8, 2020 Corrected March 11 2020; Accepted March 14, 2020

© 2020. Institute of Brain base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간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인터넷은 빠르고, 경계가 없는 확장성과 무한 복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Choi, Choi & Choi, 2008). 나아가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익명성은 인터넷 공간을 차별화시키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도움을 주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이 가진 특징들은 이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혐오 발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인터넷 댓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의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인터넷 댓글은 상호작용성과 여론 형성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로, 즉각적인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Moon, Kim, & Oah, 2013).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댓글에 달린 답글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답글은 댓글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댓글과 답글은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공간의 상호작용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댓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 특히, 댓글을 통한 인터넷 여론은 여론 형성의 시간이 짧고(Choi, Choi, & Choi, 2008), 집단적 여론 형태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Choi, Choi & Choi, 2008).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은 혐오 표현이 확장되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혐오 발언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들의 논리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였다(Kim, 2015; Um, 2016; Yoon, 2013; Lee, 2014; Chung, 2016).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담론을 지탱하는 하위 담론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 혐오 담론을 지탱하는지를 다룬 사례는 없었다. 현재의 여성 혐오 담론은 사회·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여성 혐오 담론의 구조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 속 여성 혐오 댓글/답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하위 담론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여성 혐오 및 혐오 발언, 대상화(objectification), 인터넷 댓글의 여론 형성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본격적인 댓글/답글 분석이 이루어진다. 댓글/답글 분석 과정은 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과 Martha Nussbaum의 대상화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요약하고,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 및 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II. Theoretical Discussion

1. Definition of Misogyny and Hate Speech

혐오 발언이란 인종·국적·종교·성별·문화·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의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언어표현이다(Lee, 2015). 즉, 대상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언어 비난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혐오 발언이다. 예를 들어, 중국 동포에게 흉악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우거나(Park & Kim, 2017), 이주 여성에게 매춘녀와 같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우(Han, 2016) 등이 있다.

혐오 발언은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 여성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로, 그 기반에는 여성 혐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혐오(misogyny)란 무엇인가?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여성 혐오는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혐오의 차원은 이보다 훨씬 넓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Nussbaum의 논의를 들 수 있다. Nussbaum은 ‘대상화’ 개념을 이용하여 여성 혐오를 설명한다. 대상화란 상대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즉 한낱 물건이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Levmore & Nussbaum, 2010). 요컨대, 여성의 자율성, 주체성 등을 무시하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방식 또한 여성 혐오라

는 것이다. 나아가 Ueno(2010)는 여성 혐오를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객체화, 타자화하는 것, 다시 말해 ‘여성 멸시’라고 하였다. 즉,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모두 여성 혐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여성 혐오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나아가 그들의 자율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혐오 발언은 개인의 정체성을 편협하게 보는 시각에 기반을 둔다. 이는 인종·종교·성적 지향성·정치적 지향성·국적·민족·피부색·성별 등에 대한 선입견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이다(Kim, 2017). 다시 말해, 혐오 발언은 개인을 특정 집단 구성원으로서만 바라보고, 그 집단에 부여된 속성을 바탕으로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혐오 발언은 Amartya Sen의 ‘단일 소속 관계의 가정’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단일의 소속 관계의 가정은 누구나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단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는 형식을 취한다(Sen, 2006). 여성 혐오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개인을 여성이라는 집단에만 속한 것으로 바라보고, 여성이라는 집단에 부여된 부정적 속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의 핵심으로 소위 ‘김치녀 담론’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김치녀’라는 용어는 한국 여성을 칭하는 것으로, 이 속에는 외모, 여성성, 나이, 능력 등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김치녀 담론’은 한국 여성에게 못생기고,

이기적이며 돈만 밝히는 속물, 창녀 등의 속성을 부여한다(Kim, 2015; Kim, 2017; Yoon, 2013; Jang & Ryoo, 2017; Chung, 2016).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혐오 담론을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김치녀 담론’을 지탱하는 다양한 하위 담론 또한 존재한다. 즉, ‘김치녀 담론’은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논리가 아니며,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하위 담론들이 ‘김치녀 담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치녀 담론’을 핵심에 두면서, ‘김치녀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담론들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Objectification

대상화는 상대의 주체성, 자율성은 무시한 채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자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Levmore & Nussbaum, 2010). 다시 말해, 대상화는 인간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대상 또는 사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Kim & Lee, 2017).

Nussbaum은 대상화의 방식을 <Table 1>과 같이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Levmore & Nussbaum, 2010). <Table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상화는 상대방의 주체성, 자율성, 능력 등에 대한 무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폭력 행사의 범위까지 아우른다. Nussbaum은 아래의 일곱 가지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여러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어 다양한 대상화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한다(Levmore & Nussbaum, 2010).

여성에 대한 대상화가 일어났을 때, 여성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성적인 기능이 여성의 인격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축소된다(Son, 2006). 그리고 여성들은 대상화에 의해 수치심, 불안감을 느끼고, 최고조의 동기 상태가 드물게 나타나게 되며, 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해 잘

<Table 1> Seven methods of objectification

Method	Explanation
Instrumentality	Treat objects as tools for purpose.
Denial of Autonomy	Treat the object as if it had no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Inertness	Treat the object as if it had no power or vitality.
Fungibility	Treat an object as if it could be replaced by another object.
Violability	Treat the object as if it could be invaded and broken, or shattered at any time.
Ownership	Treat the object as ownable, buyable or sellable.
Denial of Subjectivity	Treat it as if you do not need to consider the experience and feeling of the object.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Son, 2006).

3. Interactivity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f Internet Replies

인터넷은 개인과 개인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다(Kim, 2004). 댓글은 온라인 공간이 갖는 상호작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 과정의 중심에 있다.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Ju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이다. 공론장이란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공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며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선을 향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그 합의를 사회적 공론(public opinion)으로 구현하는 담론 공간을 말한다(Kim & Kim, 2008).

공론장으로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낙관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댓글은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댓글은 매스미디어 저널리즘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융합된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하고,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Kweon & Kim, 2008)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댓글 상호작용이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인 비숙의 과정이 되거나(Kim, 2004),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말장난이나 조롱, 욕설과 인식 공격적 주장이 난무하는 ‘난장(wild publics)’으로 만든다는 점(Kim & Kim, 2005)에서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즉, 공론장이든 난장이든)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과 답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관점 모두 인터넷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인터넷 여론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hoi, Choi & Choi(2008)는 인터넷 여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인터넷 여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여론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결정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여론은 현실 공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Choi, Choi & Choi, 2008). 이 과정에서 포털 뉴스의 댓글은 사회적 압력 기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Choi, Choi & Choi, 2008).

이처럼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고, 형성된 인터넷 여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댓글과 답글을 통한 혐오 발언이 특정 집단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이지만 신속하고 집단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인터넷 여론의 특성(Choi, Choi & Choi, 2008)은 댓글과 답글을 통한 혐오 발언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 댓글 및 인터넷 여론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인터넷 여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 댓글·답글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 나타나는 혐오 발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 발언들 기저에 놓여 있는 담론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Research Method and Subjects

1. Research Method

Norman Fairclough는 담론 분석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아래의 <Table 2>는 Fairclough 담론 분석의 3단계 작업이다(Choi, 2014). Fairclough는 각각의 단계에서 분석이 진행되지만, 단계가 바뀔에 따라 분석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Fairclough, 2001).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와 그 짜임새를 음성, 어휘, 문법, 텍스트의 구조 혹은 거시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Jang & Ryoo, 2017). 다음으로, 담론 수준에서의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이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해 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Choi, 2014).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수행 차원에서의 분석, 즉 설명은 텍스트를 통한 담론 생산이 사회·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설명 단계는 사회구조에 의해 담화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런 구조들에 대하여 담화가 계속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면서 누적적으로 어떤 재생산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Fairclough, 2001).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이론적 틀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단, Fairclough의 3단계 담론 분석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먼저, Fairclough가 텍스트-담론-사회문화 차원의 분석 과정을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담론 수준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가 전제하고 있는 텍스트와 사회·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미시적 차원(댓글/답글 내용 분석)에서 거시적 차원(담론 구조 분석)의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댓글/답글의 내용 및 담론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Table 3>은 연구 방법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의 첫 단계는 댓글/답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먼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범주화 틀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담론과, 이 담론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부정적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이어서 댓글/답글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담론 차원의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댓글/답글 범주화를 바탕으로 각각의 범주 안에 깔린 하위 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론 구조 분석에는 Nussbaum의 대상화 개념이 활용되었다. 대상화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그릇된 행위를 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상화 개념을 통해 각 하위 담론 기저에 놓여 있는 그릇된 인식들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릇된 인식들이 어떠한 논리로 귀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여성 혐오에 대한 담론들이 취하고 있는 대상화의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담론들이 갖추고 있는 논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Research Subjects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답글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분석 대상이 될 인터넷 기사를 네이버(<https://www.naver.com>) 검색을 통해 추출하였다. 검색 키워드로는 ‘강

<Table 2> Fairclough's discourse analysis

Analysis Dimensions	Stages	Explanation
Text	Description	Describing the linguistic attributes that are operating on the text
Discourse Practices	Interpretation	Interpreting text in relation to the processes in which it is produced and consumed
Sociocultural Practices	Explanation	Explaining the social decision contents and their social effects on the 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xt
Comments & Replies	- Vocabulary analysis used in comments/replies	
Content Analysis	- Comments/replies categorization	
Discourse Analysis	- Identify discourse type - Analysis of logical structure of discourse based on concept of objectification -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sub-discourses	

<Table 3> Discourse structure analysis stages

남역 살인사건'을 삼았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이 사건이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일부 고립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페미니즘 운동을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Kim(2017)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한국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됨을 언급한다(Kim, 2017).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여성 운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다는 사실도 키워드 선정 이유 중 하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여성 혐오가 원인이라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일탈적 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았는데(Um, 2016), 이와 같은 대립 양상은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댓글/답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검색 조건의 기간을 2018년 5월 17일로 설정하였다. 2018년 5월 17일은 해당 사건의 2주기로, 잠시 관심 밖에 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일에는 해당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으로, 관련도와 댓글 수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이 될 기사를 선정하였다. 키워드 검색 후 기사를 관련도 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10개 기사의 댓글 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댓글이 50개 이상 달린 인터넷 기사 5개를 선정하였다. 아래의 <Table 4>는 선정된 기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기사에서 심층 분석 대상이 될 댓글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추천과 반대 수를 삼았다. 네이버 인터넷 뉴스 댓글은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으로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순공감순 정렬을 활용하여 각 기사의 상위 댓글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⑤번 기사의 경우 다른 기사보다 댓글 수가 월등히 많아, 상위 댓글

10개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위 댓글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상위 댓글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다. 실제로 Moon, Kim, & Oah(2013)는 인터넷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일반 댓글의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베스트 댓글이 동조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각 댓글에 달린 답글들을 살펴보았다. 단, 이 연구에서는 댓글에 달린 답글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답글 중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화 틀을 기준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뚜렷하게 나타난 일부를 추출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댓글 내용과의 관련성 및 맥락도 살펴보았다.

단, 이 연구에서는 댓글이 작성된 날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터넷 댓글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기사가 포털에 게시된 일자와 특정 시간대에 의견이 집중되고, 급격하게 관심이 사라지는 일시성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Choi, Choi & Choi, 2008). 분석 대상 댓글 목록은 <Appendix 1>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체 30개 댓글 중 여성 혐오 발언이라 판단할 여지가 있는 17개의 댓글(음영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IV. Analysis Conclusion

1. Comments / Replies Content Analysis and Categorization

앞서 언급했듯이, 댓글/답글을 범주화하기 위한 틀을 먼저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주요 속성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그

<Table 4> Internet articles to analyze

Number	Title	The Number of Comments
①	Gangnam Station Murder 2nd Cycle... "Dreaming of a world without misogyny"	105
②	"Women not to be killed" ... Voices at Exit 10 of Gangnam Station	190
③	Gangnam Station Murder 2 Cycles ... "The world is worse" Anger of Women	63
④	"Gangnam station murder case" two years... Growing Misogyny Controversy	110
⑤	Gangnam Station Wanton Murder Case 2nd Cycle... "Women discrimination and risk are remaining"	2,348

결과, 인터넷 여성 혐오의 핵심에는 ‘김치녀 담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치녀’라는 용어 속에는 못생김, 공중도덕 관념과 책임감이 없음, 이기적임, 돈과 명품만 밝히는 속물, 은혜를 모르는 후안무치, 성적으로 방종한 ‘걸레’ 등의 속성이 부여된다. 요컨대, ‘김치녀’는 비만이고 못생겼고 성적 매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성형수술을 하지만 예뻐지지 못하며,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남성의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 할 뿐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Kim, 2015; Yoon, 2013).

Chung(201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초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군대도 안 가면서 성형중독에 새치기를 일삼고,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쓰거나 일을 떠넘기며, 데이트에서는 돈 많은 남자와 명품만 밝히는 속물이고, 어학연수 가서는 외국 남성과 동거하는 ‘걸레’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Um(2016)은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의 ‘김치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난과 성적인 측면의 비난이 절묘하게 결합된 명칭이라 이야기하였다. 즉, ‘김치녀 담론’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여성 비하 담론들의 결합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김치녀 담론’을 여성 혐오 담론의 핵심에 두었다. 그리고 이 담론이 전제하는 부정적 속성들을 바탕으로 여성 혐오 댓글 범주화 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외모’와 ‘성질’이라는 상위 범주와 각 상위 범주에 포함되는 ‘추녀’, ‘성형 중독’, ‘이기적’, ‘비이성적·무능력’, ‘속물’, ‘성적 방종(걸레)’이라는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위 범주 중 ‘추녀’, ‘성형 중독’은 ‘외모’ 상위 범주에, 나머지는 ‘성질’ 상위 범주에 포함된다. <Table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Comments & replies types categorization

Upper Category	Sub-category
Appearance	Ugly
	Plastic Surgery Addiction
Temper	Selfish
	Irrational/Incompetence
	Materialistic Snob
	Sexual Indulgence

범주화 틀을 구성한 후에는 기사 별 댓글에 사용된 표현/어휘 중 여성 혐오 발언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추출해보았다. 아래의 <Table 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어휘 이외의 댓글 표현은 댓글의 주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추출된 표현/어휘들을 앞서 설정한 범주화 틀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성형 중독’, ‘성적 방종’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어휘는 없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특성상 외모나 성적인 비난보다는 ‘이기적인 여성’이나 ‘비이성적인 여성’의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해자 이런 걸로 이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③-1)”라는 표현에는 유가족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정치화한 이기적인 여성 집단의 의미가, “또라이 미친짓에 의미부여(①-4)”라는 표현에는 피해 의식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여성 혐오 범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비이성적인 여성 집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Table 6> Hate speech against women used in comments

Article Number	Contents
①	남성 혐오, 82킬로 그분들, 여성부, 공룡화 된 여성단체의 분탕질, 또라이 미친짓에 의미 부여
②	홍대 몰카 피해자 공연음란죄, 여성이 죽임을 당한다?
③	피해자 이런 걸로 이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김치녀, 밤에 활보, 뽕뽕, 저년들, 메갈년, 워년, 잣같은 년들, 삼일한, 개념 없는 년들
④	워마드, 여시, 여자라서 당한다는 개소리, 메갈,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논리, 남 탓,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자들, 페미=메갈
⑤	여성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Table 7> Hate speech against women used in comments categorization

Upper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Appearance	Ugly	82킬로 그분들
	Plastic Surgery Addiction	.
Temper	Selfish	피해자 이런 걸로 이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홍대 몰카 피해자 공연음란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논리, 남 탓, 여성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Irrational /Incompetence	여성부, 공통화 된 여성단체의 분탕질, 또라이 미친짓에 의미부여, 여성이 죽임을 당한다?, 밤에 활보, 뺑뺑, 개념 없는 년들, 여자라서 당한다는 개소리
	Materialistic Snob	.
	Sexual Indulgence	.
Not Classified		남성 혐오, 김치녀, 저년들, 메갈년, 워년, 잣같은 년들, 삼일한, 위마드, 여시, 메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자들, 페미=메갈

<Table 8> Hate speech against women used in replies categorization

Upper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Appearance	Ugly	돼지년, 메돼지, 살이 찌지, 냄새나게 생긴 돼지년, 메갈 쿵광형아들
	Plastic Surgery Addiction	성형기형아년들, 성형괴물, 성괴년
Temper	Selfish	기생하는 그 성별, 여자면 안 죽게 해달라는 게 페미니즘, 페미가 여성우월주의이고 남성 혐오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 페미년들 군대도 안가 힘든 일 안할라해 밥값 남자가 계산해줄 때까지 기다려 존나 배려 받을라고 해, 그러면 또 애 낳아야 되거든요?, 남성을 죽이고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페미니스트, 계집들도 군대가, 결혼도 쳐 안 할려는 년들이 임신타령, 군대 한 번 가야 정신 차리지, 군대가자 김치녀들아, 노처녀로 뒤질 년이 임신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싫고 혜택 더 받는게 페미니즘의 본질, 이중 잣대, 내로남불, 피해망상 이기주의 페미니즘, 뷔페니즘, 군대부터 갔다 온 다음 이야기하자, 화이트컬러는 여성 할당제 해야 하고 블루컬러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주장
	Irrational /Incompetence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념, 페미는 잠재적 살인마, 왜곡, 조작질 하는 꼴 페미들, 과장, 병신년들 혼자 생각하고선, 똥배기 씹창난 한녀충, 범죄를 미러링하고 한남제기 하라는 것이 페미니즘, 아빠에게 애비충이라 하는 것이 페미니즘, 치안 조무사, 현대 사회 무임 승차 암컷들
	Materialistic Snob	해외여행, 스타벅스
	Sexual Indulgence	저기 가서 시위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낙태 허용 찬성, 분리수거 대상
	Not Classified	꼴페미, 김치런, 삼일한, 덜 처맞은 두 년들, 메갈새끼들, 메갈, 위마드, 여성의 존재 이유는 2세 출산, 한녀, 스시녀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표현/어휘도 다수 있었다. 그 중의 대다수는 특정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페미니스트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 또는 욕설이었다. 대표적으로 ‘메갈년’, ‘워년’, ‘여시’는 각각 메갈리아, 위마드, 여성시대라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커뮤니티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과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다. 그 외에 ‘남

성 혐오’는 현 사회가 더는 남성 중심적이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며, 혐오 당하는 사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치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집약된 대표적인 용어이다.

이어서, 댓글에 달린 답글의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여성 혐오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

나거나 여성 혐오를 포함하고 있는 답글들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답글 목록은 <Appendix 2>에 정리하였다.

댓글 내용 분석 과정과 마찬가지로 답글에 사용된 표현/어휘를 범주화 틀에 맞추어 분류해 보았다. <Table 8>은 답글에 사용된 표현/어휘를 범주화 틀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답글의 경우 댓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표현들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어휘도 다양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답글이 ‘이기적’ 범주와 ‘비이성적/무능력’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댓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기생하는 그 성별(②-1-(1))”, “여자면 안 죽게 해달라는 게 페미니즘(②-2-(2))”, “뽀페니즘(⑤-1-(13), ⑤-1-(19))” 등의 답글들은 여성의 이기심을 꼬집는 사례이다. 여성의 비이성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답글로는 “조작질 하는 뽀 페미들(②-2-(1))”, ‘과장’, ‘왜곡’ 등이 있었다.

답글의 경우에도 댓글과 마찬가지로 범주화 틀로 분류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중 대다수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 전반, 페미니스트,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 외에 눈에 띄는 표현으로는 ‘삼일한’, “여성의 존재 이유는 2세 출산(⑤-1-(2))”, ‘스시녀’ 등이 있다. 이중 ‘삼일한’이란 ‘여자는 삼일에 한 번 맞아야 한다’는 의미의 대표적인 여성 혐오 표현이다. “여성의 존재 이유는 2세 출산(⑤-1-(2))”이라는 답글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시녀’는 ‘한국 여성과는 달리 순종적인 일본 여성’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그들이 원하는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Um(2016)은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의 여성 혐오가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에서 그치는 전라도, 중북에 대한 혐오와는 달리 바람직한 여성상을 뚜렷하게 마련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댓글/답글 범주화 결과, 사례의 특성상 ‘이기적’, ‘비이성적/무능력’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만, 답글의 경우에는 모든 범주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범주에 포함되는 댓글/답글의 양적인 수보다는 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화 결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범주화 틀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댓글/답글들은 담론 구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Discourse Construct Analysis

담론 구조 분석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각 범주에 속한 댓글/답글 내용 분석을 통한 하위 담론 확인 단계이다. 다음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하위 담론들이 일곱 가지 대상화의 방식 중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하위 담론들이 어떠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하위 담론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여성 혐오 담론을 형성해 가는지 간략하게 확인해보았다.

먼저, 각각의 범주에 주로 제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속하는 하위 담론을 찾아보았다. 단, ‘성형 중독’, ‘속물’, ‘성적 방종(결레)’ 범주의 경우 댓글/답글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말미에 세 가지 범주를 묶어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추녀’ 범주에서는 ‘뽕뽕함’을 ‘매갈’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뽕뽕하다, 즉 매력이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연구자는 이를 ‘매력없는 페미니스트 담론’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이기적’ 범주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먼저, ‘뽀페니즘’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유형이 있다. 대표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논리(④-3)”, “페미니스트들은 힘든 일 안하려고 하면서 남자가 밥 값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고, 배려 받으려 한다(④-2-(1))”, “이중 잣대(⑤-1-(11))”, “내로남불(⑤-1-(11))” 등의 사례가 있다. 연구자는 이를 ‘뽀페니즘 담론’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대’를 중심 내용으로 삼는 댓글/답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에게도 군 복무의 기회를(⑤-1)”, “계집들도 군대가(⑤-1-(3))”, “군대 한 번 가야 정신 차리지(⑤-1-(5))” 등의 댓글/답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댓글/답글들은 ‘여성 징병제 도입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자체를 이

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답글들이 있다. 연구자는 이 유형을 ‘이기적 페미니즘 담론’으로 설정하였다. “페미가 여성우월주의이고 남성 혐오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④-1-(2))”, “남성을 죽이고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페미니즘(④-3-(1))”, “피해망상 이기주의 페미니즘(⑤-1-(11))”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이/가 페미니즘’이라는 서술 형태를 보인다.

세 번째로, ‘비이성적/무능력’ 범주의 댓글/답글들은 여성의 비이성적, 비논리적 속성을 강조하는 유형과 여성들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또라이 미친 짓에 의미 부여(①-4)”, “여성이 죽임을 당한다?(②-2)”, “여라서 당한다는 개소리(④-2)”, “뚝배기 씹창난 한녀충(④-2-(2))”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이를 ‘비이성적 여성 담론’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는 댓글/답글에는 “여성부와 공룡화 된 여성단체(①-3)”, “치안 조무사(⑤-1-(12))”, “현대 사회 무임승차 암컷들(⑤-1-(18))” 등이 있다. 이러한 댓글/답글들은 ‘무능력한 여성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 담론은 여성들이 자신의 무능력함도 모르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끝으로, ‘성형 중독’, ‘속물’, ‘성적 방종(걸레)’ 범주에서는 각각 ‘성형 괴물 담론’, ‘사치스러운 여성 담론’,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성형 괴물’이란 성형 수술을 지나치게 해서 외모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주로 여성들이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사치스러운 여성 담론’은 ‘스타벅스’와 ‘해외여행’을 기표로 여성들의 사치스러움을 강조한다. 끝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

스트 담론’에는 “저기 가서 시위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낙태 허용 찬성(⑤-1-(8))”, “분리수거 대상(⑤-1-(8))”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 중 특히 첫 번째 사례가 페미니스트에 성적 문란함과 비윤리성이라는 속성을 강조한다. 아래의 <Table 9>는 하위 담론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각 하위 담론이 어떤 대상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대상화 방식은 각 하위 담론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먼저, 매력 없는 페미니스트 담론과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은 도구성, 자율성 거부, 소유권, 주체성 거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중 매력 없는 페미니스트 담론에서는 여성을 남성들이 그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이 경쟁에서 낙오되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매력 없는’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자 생식을 위한 도구이므로, 그들의 성적 만족이나 성적 결정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성형 괴물 담론은 도구성, 자율성 거부, 주체성 거부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담론은 외적인 매력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성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형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난과 결합하여(Kim, 2015) 여성을 억압한다. 나아가 성형 수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들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세 번째로, 뷔페니즘, 여성 징병제 도입, 이기적 페미니즘, 비이성적 여성 담론은 모두 자율성 거부, 비활성, 주체성 거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일단

<Table 9> Sub-discourse analysis by category

Category	Sub-discourses	Example
Ugly	Charmless feminist discourse	메돼지, 메갈 쿡광형아들
Plastic Surgery Addiction	Plastic surgery monster discourse	성형괴물, 성괴년
Selfish	Buffetnism discourse, Women conscription discourse, Selfish feminism discourse	뷔페니즘, 이중 잣대
Irrational/Incompetence	Irrational women discourse, Incompetence women discourse	왜곡, 조작, 여성부
Materialistic Snob	Extravagant women discourse	해외여행, 스타벅스
Sexual Indulgence	Sexually promiscuous and unethical feminist discourse	낙태 허용 찬성

<Table 10> Objectification methods by sub-discourse

Sub-discourse	Objectification Methods
Charmless Feminist Discourse	Instrumentality, Denial of Autonomy, Ownership, Denial of Subjectivity
Plastic Surgery Monster Discourse	Instrumentality, Denial of Autonomy, Denial of Subjectivity
Buffetnism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Denial of Subjectivity
Women Conscription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Denial of Subjectivity
Selfish Feminism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Denial of Subjectivity
Irrational Women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Denial of Subjectivity
Incompetence Women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Fungibility
Extravagant Women Discourse	Denial of Autonomy, Inertness
Sexually Promiscuous and Unethical Feminist Discourse	Instrumentality, Denial of Autonomy, Ownership, Denial of Subjectivity

네 가지 담론 모두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하는 행위를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특히,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모순되는 지점에서 여성을 무능력한 존재로 치부하는 논리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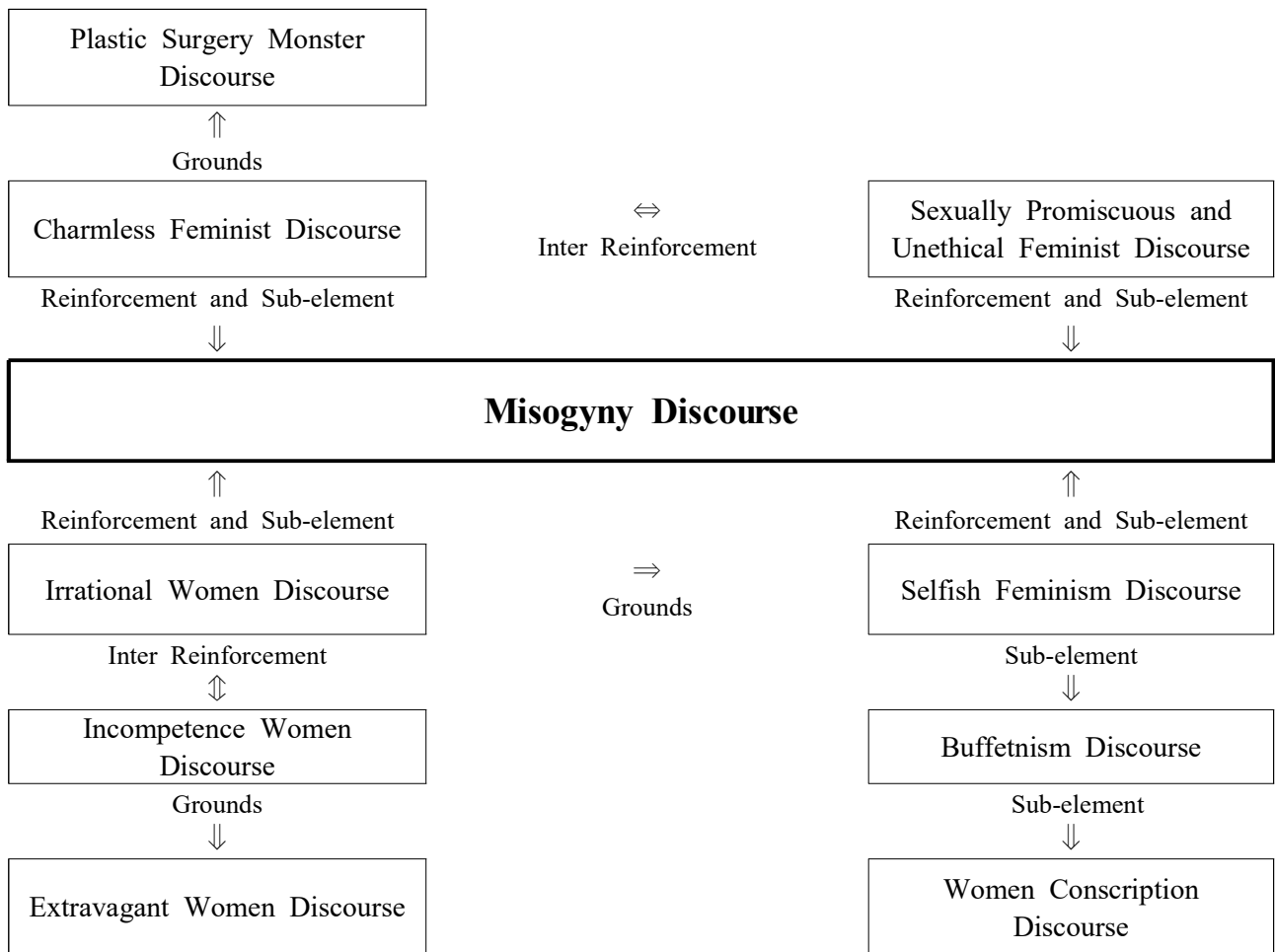
이어서 무능력한 여성 담론에서는 자율성 거부, 비활성, 대체 가능성의 방식을, 사치스러운 여성 담론에서는 자율성 거부와 비활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중 전자는 여성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여성들은 능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 외에 가침성의 방식은 모든 담론에 포함된다. 여성 혐오 발언 자체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이에 모든 담론은 가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대상화가 매우 일상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Kim & Lee(2017)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화가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하위 담론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여성 혐오 담론을 구성하는지 살펴 보았다. 일단, 각각의 하위 담론들은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하위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며, 상호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력 없는 페미니스트 담론과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속성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서로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이룬다. 그리고 무능력한 여성 담론은 사치스러운 여성 담론의 근거로 작용하고, 비이성적/무능력한 여성 담론은 이기적인 페미니즘 담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기적인 페미니즘 담론의 하위 요소로는 뷔페니즘 담론이, 뷔페니즘 담론의 하위 요소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담론이 작동하고 있다. [Figure 1]은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 혐오 담론을 구성하는 하위 담론들의 상호 관계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 간 상호 관계를 하나의 명확한 구조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사례에 따라 담론의 종류와 구조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각의 하위 담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김치녀 담론’과 여기에서 파생된 ‘역차별 담론’ 등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이러한 하위 담론들의 상호작용 과정은 궁극적으로 상위에 있는 여성 혐오 담론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여성 혐오 담론은 댓글/답글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의 분위기를 정착시킨다.



[Figure 1] The discourse structure of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V.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이 연구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다룬 인터넷 기사의 댓글과 답글을 사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유형을 확인하고, 담론 구조를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터넷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은 외모에 대한 범주와 성질에 대한 범주로 구분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녀’, ‘성형 중독’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기적’, ‘비이성적/무능력’, ‘속물’, ‘성적 방종(걸레)’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범주에 포함된 댓글/답글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하위 담론을 파악하고, 각 하위 담론의 논리를 대상화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매력 없는 페미니스트 담론’, ‘성형

괴물 담론’, ‘뷔페니즘 담론’, ‘여성 징병제 도입 담론’, ‘이기적인 페미니즘 담론’, ‘비이성적 여성 담론’, ‘무능력한 여성 담론’, ‘사치스러운 여성 담론’,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이라는 9가지 하위 담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화 방식 중 자율성 거부와 주체성 거부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그 외의 방식들도 고루 활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모든 하위 담론이 ‘가침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가 일상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구조를 도식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각의 담론들은 다른 담론의 근거나 하위 요소로 작동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위 담론들은 여성 혐오라는 상위 담론을 만들어 내고, 이를

유지 및 확대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기존에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리된 ‘김치녀 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에는 ‘김치녀 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의 단계 중 두 번째 단계까지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여성 혐오 담론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사회·문화가 여성 혐오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 혐오 담론의 구성 방식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 혐오 담론은 일상적이며,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 실제로 여성 혐오 담론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여성 스스로 ‘개념녀’가 되고자 노력하게 한다(Kim, 2015).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앞으로는 비판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집단 혐오 및 혐오 발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i. D. S., Choi. S. E., & Choi. Y. J. (2008). How do comments affect forming public opinion in Internet portal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8, 311-358.
- Choi. Y. S. (201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eoul: Hankkonnunhwasa.
- Chung. I. K. (2016). Internet Misogyny in a post-feminist era. *Issues in Feminism*, 16(1), 185-219.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translated by Kim. J. H. (200). Gwangmyung: Kyungjin.
- Han. H. J. (2016). Narratives and emotions on immigrant women analyzing comments from the agora internet community(Daum Portal Sit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5(1), 43-79.
- Jang. S. Y., & Ryoo. W. J. (2017). Online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hatred: Focusing on the cases of Ilbe and Megalia, *Speech & Communication*, 45-85.
- Kim. B. C.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activity on discussion by internet newspaper user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4), 147-180.
- Kim. J. H., & Lee. S. J. (2017). Understanding anti-misogyny online community <Megalia> from the perspective of agamben's profana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5(1), 85-113.
- Kim. K. N., & Kim. J. Y. (2005). Analyzing reader's comments in internet newspaper ohmy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3), 7-41.
- Kim. S. A.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 Kim. S. A. (2017). On the online community and the potentiality of conversation about feminism. *Media, Gender & Culture*, 32(3), 5-45.
- Kim. S. J., & Kim. Y. R. (2008). A study on gender discourse and gender characteristics in cyber public sphere. *Media, Gender & Culture*, (10), 5-36.
- Kweon. S. H., & Kim. I. H. (200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activities in the news replies - Focused on news perception and credibilit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2(2), 44-78.
- Lee. G. H. (2014). How do we recognize "Ilbe"? *Citizen & the World*, (25), 244-256.
- Lee. J. I. (2015). The speech code debate on regulation

- and freedom of hate speech.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2(4), 1-18.
- Levmore. S., & Nussbaum. M. (2010).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translated by Kim. S. H. (2012). Uiwang: Acom.
- Moon. K. S., Kim. S., & Oah S. Z. (2013). An effect of the valence of best reply on the conformity of general rep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201-211.
- Park. M. H., & Kim. S. (2017). A study on analysis of korean society's xenophobia towards korean-chinese through comments of online news: Focused on before and after Oh won-chum news report. *Multiculture & Peace*, 11(3), 92-117.
- Sen, A. (2006).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Ueno. C. (2010). *ONNA GIRAI-NIPPON NO MISOGYNY*. translated by Na. I. D. (2012), Seoul: EunHangNaMu.
- Um. J. (2016). Strategic misogyny and its contradic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posts on the internet community site Ilgan Best Jeojangso(Daily Best Storage) -. *Media, Gender & Culture*, 31(2), 193-236.
- Yoon. B. R. (2013), Ilbe and misogyny. *THE RADICAL REVIEW*, (57) 33-56.
- Yoon. B. R. (2014). Online feminism.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30), 166-180.
- Sen. A. (2006),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translated by Lee. S. H., & Kim. J. H., (2009), Seoul: Bybooks.
- Son. E, J. (2006). The influence of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women's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4), 399-417.

[저자의 소속과 직위]

강원준 : 제주도평초등학교, 교사, 단독저자

<Appendix 1> A list of comments

Number	Writer ID	Contents	Recommendation /Opposition	The Number of Replies
①-1	wndr****	남성혐오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106/51	6
①-2	love****	남성혐오는 문제가 없나? 성차별뉴스 그만해라	38/13	0
①-3	pada****	개인의 일탈범죄 하나하나를 들쭉서대며 사회불안조장, 남녀편가르기하는 나라가 8000예산 여성부와 그 돈으로 공룡화된 여성단체가 분탕질하는 한국뿐이다.	12/4	0
①-4	sonm****	일개 또라이한명이 미친짓한건데 사회적인 의미부여를 하고있었네	11/5	0
①-5	caha****	82킬로 그분들 무거운 걸음 하셨네	6/2	0
②-1	high****	홍대 몰카피해자는 공연음란죄라고 2차 가해하던 그성별이 하는 시위따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103/55	12
②-2	umil****	강남역에서 살해당해서 죽은것도 알겠고, 뭐 여성운동이라서 하는 것도 잘 알겠는데, 여성이 죽임 당한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음? 여성을 살해하는 존재가 100% 남성임?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믿고싶고, 저기 모인사람들 중에 잠재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할 거라고, 혹은 그런 피해를 막아보자고 모여있을건데,, 남성은 살해당해도 괜찮은거임?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살해당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강력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야하는 거 아님? 여성이 여성을 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임?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다면?	112/82	30
②-3	ttor****	강력범죄자 성비를 보셈. 피해자 성비를 보셈. 잘못된 건 "여성이 죽임당하지 않기를"이라는 문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임. 피해망상이라고? 설사 피해망상이라 할지라도, 한 성별에 국한해 피해망상을 하게 만든 사회가 이상한 것임.	45/18	14
②-4	mesi****	강력 범죄자 성비를 보셈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님 전세계 어디에도 강력 범죄자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임 한국 남성만의 문제가 아님 전세계 인류의 문제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 비율 대부분은 남자가 차지함.....특히 성범죄의 90%는 남자가 가해자일 것임	39/16	15
②-5	dbfl****	한국남성분들 여성들이 저렇게 소리내는데 뭐가 그렇게 화나시는 부분인지? 남성인권이 더 바닥이라고 ? 그럼 남자들도 모여서 운동하고 청원해 ~~ 피해주면서 하는것도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안들어서 저 난리들인지 정말 이해가안가네ㅋㅋㅋ	44/24	4
③-1	seon****	유가족이 피해자 이런걸로 이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52/28	7
③-2	chol****	근데 존나 웃긴건 정작 한국보다 잘 사는 서유럽 국가들은 밤되면 쥐새끼 한마리 찾기힘드는데 김치녀들은 한국에서 밤에 잘만 확보한다 그러고도 한국 치안이 10창인것만양 뻥뻥댄다	24/14	1
③-3	hahy****	댓글만봐도 분노할만하네. 없던여혐이 생긴다고? 니가 숨쉬듯이 하던게 여혐이야 니가 가해자 방관자니까 너만 몰랐겠지	21/12	0

③-4	okja****	저년들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안상태를 갓밥으로 보나... 중동이나 중남미 보내봐야 정신 차리지..	14/6	0
③-5	slap****	메갈년 워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갓같은 년들 그리 싫으면 이민 가던가. 삼일한으로 겁나 쳐 맞아야할 개념없는 년들	27/21	7
④-1	tutu****	아니 왜 일베가 여혐하는건 범죄로 몰아가고 워 마드가 남혐하는건 고상한 페미니즘으로 포장하 는거죠? 저도 여자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 없어 져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당당하려면 역시 워마드 규탄성명발표하고 다른 노선으로 가야합 니다. 그래야 공존합니다	159/25	22
④-2	cybe****	욕을먹는 이유를 모르네 그냥 페미라서 먹는줄아 나 하는짓거리가 쓰레기라서 먹는데 여자라서 당 한다는 개소리나하네	110/29	9
④-3	ganj****	페미니스트를 자칭하고 올바른 페미니즘을 주장 하는사람들은 왜 워마드나 메갈을 비판하는 목소 리는 내질않는가... 결국달면삼키고 쓰면 뱉겠다 논리 아닌가??	61/4	10
④-4	kk71****	여혐 여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으면서 왜 남탓 을 하나.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라.	17/3	0
④-5	hdh4****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주의할것이 아니 라 우선 너네와같은 페미니스트라고하는 여자들 을 경계해야한다 나도 2-3년전까지는 페미라 고 하면 그런갑다 불이익은 없애야지 했는데 페 미들 사이에 메갈들이 숨어들어서 페미니스트 라고 쩡쩡대고 다닌다 그래서 이젠 페미=메갈 취급한다 ㄹㅇ로 내부의 적부터 잡아라 그 메갈 들이 너네들 욱먹이고다니는거다	11/0	0
⑤-1	mosi****	성차별 하지 맙시다! 여성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3207/1351	255
⑤-2	ahat****	댓글 정말 '그성별'이 쓴 거 티난다^^ 성범죄 가해 98퍼센트 '그 성별'^^	2131/847	83
⑤-3	sky1****	근데 100명중 성범죄자 남성99명을 그럼 뭐라고 해야할까? 100명중2명의 여성 성범죄자를 여자 전체가 그런양 비하하는 너희를	1634/600	93
⑤-4	ka_j****	??궁금한게 남자들도 위험하다는데 뭐가 위험한 지?? 여자가 성폭행당하는걸 도와주면 안된다 도망가야된다 <이렇게 외치는 남자들이 남자들 도 위험해욧!!이러는데 뭐가??어디가 위험함?? 성폭력,데이트폭력등 범죄들은 성비로 따지면 98 퍼가 남자인데 ? 살면서 강간 데이트폭력 몰 카등 걱정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ㅋㅋ??	1330/512	76
⑤-5	boeu****	근데 진짜 여혐이던 남혐이던 다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범죄 가해자의 98프로를 차지하는 성별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그성별에게 책임전가 를 하고 변화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아니냐?? 성범죄뿐만아니지 모든 강력범죄 뿐만아니라 일 반 범죄비중에서도 남성의비율이 월등히 앞서는 데 이래도 일반화고 남혐이라는 말이나오나? 남자라면 반대로 생각해서 가해자의 98프로가 여성이였고 힘으로도 여성이우월한 세상이였다 면 여자가 안무섭겠냐? 어떻게 여자들이 별것도 아닌걸로 오바하는걸로보이나 오바는 3프로도 안되는 꽃뱀걱정하는 느그행동이 오바겠지.	624/151	34

⑤-6	jclc****	아니ㅋㅋㅋㅋㅋ평소에 엄마도 여자니까 엄마가 주는 옷도 안입었다는 범죄자가 남자는 여러명 지나가도 가만 있다가 여자 들어오니까 죽었는데 이게 여혐이 아니면 도대체 뭐임..?..뺨대갈 군무새들아 멍청한 티 좀 그만내자 ㅠ	489/91	18
⑤-7	ahff****	전남친, 이웃집 남자들에게 살해당한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05/65	12
⑤-8	hg99****	끝까지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하네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라고. 범죄자가 자기 입으로 '여성이 싫어서 그랬다' 라고 했는데도 아직 이런 제목임?	362/64	17
⑤-9	amys****	댓글창이 빵았을 땐 고개를 들어 성비를 보라 남성 83% 20대 남성 44%!!!! 웡 너네 장가못가~	373/89	29
⑤-10	omic****	참으로도 빠치는 반응들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은 4년 징역이지만 여혐국가는 아니란다	262/31	5

<Appendix 2> A list of replies

Number	Writer ID	Contents	Recommendation /Opposition
①-1-(1)	gimu****	여성 혐오 개념이 정확하게 뭘테 여자가 범죄의 피해자이면 여성혐오 개념이 성립되는건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개념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0/0
①-1-(2)	gaji****	저기 간 년들 면상보니 다 돼지년들이던데 ㅋㅋ	1/1
②-1-(1)	ah28****	loon//그 성별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기생하는 그 성별 아십니까? 20대를 온전하게 보낼수있다는것에 감사하시오.	4/5
②-1-(2)	boog****	페미니스트가 인천여아를 살해한걸 아십니까? 페미는 잠재적 살인마들입니다.	0/0
②-2-(1)	soro****	진짜 입만 열면 왜곡, 조작질하는 똥 페미들의 거짓말이 아닌 객관적인 조사를 하자... 과연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고, TV 켜면 온갖 음란물이 넘쳐나는... 막장 변태 포르노의 천국 유럽 양남들 보다..., 더구나 소아 및 아동 포르노 생산, 유통, 배포에서 항상 전세계 1위 찍는 미국 양남들 보다 한국 남자들의 음란물이 문제 인지.. 해가 지면 강간, 폭행, 강도, 살인 당할 까봐서 집 밖으로 나서지도 못 하는 유럽, 미국 여자들 보다 한국여자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지도 꼭..원 엄살과 왜곡, 과장도 정도껏 해야지.. 쫌.	5/5
②-2-(2)	juno****	남자는 뒤지건 말건 알바없고 여자면 안 죽게 해달라는게 페미니즘이야.	6/3
②-2-(3)	boos****	산재대상자, 의사상자, 군대사망자 90퍼센트가 남자. 남.자.라.서. 죽.었.다. Selfish인 여자들은 지 해외여행가기바쁘지	1/0
②-2-(4)	amar****	여성 배려는 ㅇㅋ 풀페미들은 out	0/0
③-1-(1)	rlaw****	메뽤지들 면상보니까 구역질 나오다 못해 구역역 걸릴듯 우-웁	0/0
③-2-(1)	rlaw****	한국 김치런들 삼일한 시전해져 조온나게 매질해야겠노^^	0/1
③-5-(1)	slap****	덜쳐맞은 두년들이 보이네. 어제 쳐맞고 쉬는 2일인가봐? ㅋㅋ	0/0
④-1-(1)	1211****	모든 싸움은 여자가 건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 배려 하려는 마음 가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팩트 털고 간다여자들은 남혐이지? 모든 남자는 다 똑같다 그거아냐 ? 모든 남자색기들은 다 걸레 아냐?니네 생각은 남자들은 그런생각 하는 니네페미년들만 욕하는거야 우리 엄마 누나 여동생 가족은 그렇게 생각안해 그러니까 니네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OOO 성격점 고쳐 몇마리남자가 몰카 찍으면 다른남자도 몰카 찍고 그거 야동 보냐? 시 말 본적도 없는데 몰카 야동? 다 좋아하느줄 알아 병 신 년 들이 혼자 생각하고선	4/3
④-1-(2)	k222****	페미가 메갈과 위마드 꼬리 자르기 하네.원래 페미가 여성우월주의 이고 남성 혐오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4/0

④-1-(3)	engi****	감동이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 사고지 난 메갈 워마드 판치고 나서부터는 안네라도 된양 메갈새끼들이 나 잡아갈까봐 숨죽이고 살았다	0/1
④-2-(1)	1211****	페미넌들 보면 존나 웃겨 남녀평등 요구 하면서 군대는 안가 힘든일 안 할라해 밥값 남자가 계산해줄때 까지 기다려 존나 배려 받을라 해 시발 똑같이 해야지 공사현장 가서 용접도 하고 군대가서 각개전투도 해보고 시 발 그러면 또 애 낳아되거든요!? 애 시 발 낳지마 시 발 의무도 아닌데 무슨 니네같은애들은 결혼 못해서 어차피 못나 색기들아	1/0
④-2-(2)	dptm****	임금격차 운운하는 똑배기짹:창난 한녀충들 니말대로 시급 남자만원 여자 6400원이면 남자뽕겠냐? 비와서 배달안된단니까 지 똑배기에 든 우동사리마저 다쳐먹은듯 ㅈ	1/0
④-3-(1)	k222****	페미가 메갈이고 워마드예요.남성을 밀어내고 죽이고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는게 페미니스트죠.지금은 꼬리자르기 중이구요.	1/0
④-3-(2)	iceb****	범죄를 미러링하고 스스로게 한남재기하란게 페미니즘이지.아빠에게 애비충이라하는게 팽미니즘이고, 이나영교수 말 똑바로 하쇼.당신들 페미니즘 그거 사악학 공산주의보다 더 악마들이지.그 무엇도 아니란걸.	0/0
⑤-1-(2)	lsw5****	여성의 존재이유는 2세출산	65/172
⑤-1-(3)	xlm****	재수없어. 계집들도 군대가. 그리고 출산하지마.절대 절대.	93/38
⑤-1-(4)	mhs1****	뭐 어찌라구 우리도 한녀들한테 관심없다 스시녀 한테 관심있지	91/26
⑤-1-(5)	dkse****	미 치니 녀느들 2세타령은결혼도 처안할려는 녀느들이 임신타령이나~ 진짜 니들은 군대합가야정신차리지	52/27
⑤-1-(6)	alro****	군무새 보기싫지? 그니까 군대가자 김치년들아	98/18
⑤-1-(7)	alro****	김치년들은 출산 없었으면 조동아리 퇴화했지ㅋㅋㅋㅋ 출산율은 꼴찌인데 출산부심은 세계1위야ㅋㅋㅋ	141/20
⑤-1-(8)	rlat****	문제는 저기 가서 시위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낙태 허용 찬성 한다는거.ㅋㅋㅋ 그냥 재네들은 분리수거 대상	10/9
⑤-1-(9)	fate****	성형기형아년들 때문에 짜증이다. 조만간 일본취업하는데 성형기형아년들 때문에 한국인은 전부 성형괴물이라고 생각할까봐..슈발. 기형아성괴년들만 조롱당해야지 왜 남자까지 피해를 --	3/4
⑤-1-(10)	wprk****	결혼도 못하고 노쳐녀로 뒤질년이 임신가지고 바둑바둑 대든다ㅋㅋ 에라이 미.초새기야 나가OOO	6/2
⑤-1-(11)	lizt****	딱 할 말 없으니 군무새라고 비꼬는거 이게 페미수준임. 국민으로서 군대 가라. 임신은 니랑 한남의 합의된 선택이고, 몸 안써도 되는 보직 많다. 핑계달 건 하나도 없다. 군대 가라. 이 소리 들으면 군대가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화나지? ㅋㅋㅋ 그게 페미니즘의 본질이야. 지 손해보는건 싫지만 난 혜택 더 받을래. 이중잣대 내로남불. 피해망상 이기주의 페미니즘은 절대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없어. 너흰 일베같은 사회괴기물들이야	3/2
⑤-1-(12)	tkdd****	위에 국방부가서 말하라는 년들아 여성범죄 해결은 그럼 여경 한테 해달라 해 ^^ 근데 치안조무사라서 제대로 해 줄지는 잘 모르겠다? ㅋㅋㅋㅋㅋㅋ	1/2
⑤-1-(13)	jwui****	그분들 말대로 그야말로 '평등'한 주장인데 왜이리 빼애액거리시죠? 좋은 것만 쪽쪽 골라먹는 뷔페니즘 맞나요?	1/1
⑤-1-(14)	thsa****	군대가는것보다 집앞 2분거리 스타벅스가는게 더 힘들다는 우리 꼴페미 OOO들 그러니까 살이찌지	0/0
⑤-1-(15)	dbse****	남성분들 일단 한남 넘겨들 등등 이딴 단어쓰는 여자들 피하세요 강봐도 냄새나게생긴 돼지년들이니깐	1/2
⑤-1-(16)	wata****	전쟁나면 돼지년들부터 쏴듯	0/1
⑤-1-(17)	kore****	그렇지 군대부터 갔다온 다음 야기하자 메갈 쿵광형들아	0/0
⑤-1-(18)	dptm****	노벨상의97%는 남자^^ 현대사회 무임승차 암컷들 out	0/0
⑤-1-(19)	imk4****	진짜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추구하면 이스라엘처럼 여자들이 우리도 남자와 똑같기 때문에 군대 갈수있다고 여성 징병제를 주장해야지 남자가 하는일은 다할수있으니깐 화이트 컬러는 여성 할당제 해야하고 블루컬러는 남자가 해야된다는 주장 자체가 정정대는 뷔페니즘일 뿐이다	0/0